

상징지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진흥재단, 전통무예수련장·태권전·플레이원 활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전통수련 콘텐츠가 보강된 전통무예수련장과 태권전, 올해 개장한 '플레이원' 등을 활용한 태권도원 상징지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태권도원 상징지구 프로그램은 태권도원 전통무예수련장과 태권전, 플레이원, 전망대 등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태권도 관련 콘텐츠 중 3곳을 선택 한 후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재단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수련생을 비롯해 태권도 비수련 청소년과 가족 등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가졌다. 그 결과 다수의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장소별로 인원이 분산된 가운데 체험을 진행할 수 있어 밀집도를 낮출 수 있고, 태권도원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태권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확인했다.

전통무예수련장에서는 수련형 콘텐츠인 '집

중타격 수련대, '연재배', '소도구 권력 수련' 등 강도 높은 옛 태권도 수련을 체험하며 재미 요소를 가미했다. 특히, 조선 후기 무예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의 관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무예와 전통성을 강화했다.

태권전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복 체험은 태권도 동작과 전통복을 활용한 '퓨전형 타악 태권도' 콘텐츠, '플레이원'에서는 태권도 기술과 체력을 바탕으로 2백여미터에 구성된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기록 경쟁형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태권도 지도자의 해설을 들으며 태권전과 일여한을 둘러본 후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올라 태권도원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람형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

태권도원 상징지구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가한 스타태권도장(전북 완주) 정호준 사범은 "그동안 실내에서 수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야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태권도와 결합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서 수련생들과 함께 매우 만족했다"라며 "시범운영에 참가하지 못한 도장 수련생들과 내년에도 꼭 다시 찾아 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분석 등을 마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20명 이상의 태권도장 및 내·외국인 단체 등을 고객층으로 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전통수련 콘텐츠가 보강된 전통무예수련장과 태권전, 올해 개장한 '플레이원' 등을 활용한 태권도원 상징지구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군산, 스포츠 마케팅으로 '활력'

선수·관람객 약 6만여명이 찾아
금석배 축구·아태 마스터스 등
내년 군산서 18개 대회 개최

군산시는 14일 올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로 인해 선수 및 관람객 약 6만여명이 군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금석배 전국 철인3종경기,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 등 16개의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결승전 대역전극 우승을 기념한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시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공적인 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금석배 전국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등 18개의 국제 및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군산에서 골프, 축구, 야구, 탁구 등 4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8건의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약 2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또한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관단체는 물론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없는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종목발전과 활력 넘치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4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하미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한국은 오는 24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 축구대표팀, 카타르 도하 입성

유럽파, 16일까지 차례대로 합류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결전의 땅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본진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오전 5시경(한국시간 오전 11시) 카타르 도하의 하미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표팀은 14일 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0시간여 비행 끝에 도하 땅을 밟았다.

선수단은 일반 승객이 모두 내린 뒤 대회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별도의 이동 경로를 통해 도하 시내의 르메르다양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벤투호 첫 훈련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엘에글라 훈련장에서 진행했다. 이후 대표팀은 하루 1~2차례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본진은 총 28명이 최종 명단 태극전사 중 유럽파를 제외한 국내파 등 18명과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스태프로 구성됐다.

또 후시 모를 상환을 대비해 최종 명단에 별도로 27번째 선수로 추가 발탁된 공격수 오현규(수원)도 동행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이강인(마요르카) 등 유럽파 8명은 카타르 현지에서 합류한다.

현지시간으로 16일까지 차례대로 유럽파가 합류하는 가운데 공격수 황의조(울림피아코스)와 이강인이 대표팀 본진보다 빠른 13일 카타르에 먼저 들어왔다.

월드컵에서 마스크 투혼 의지를 보인 손흥민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0시5분 도착 28명의 태극전사 중 가장 늦게 대표팀에 온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마르세유(프랑스)와의 2022~2023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서 안와 골질상을 입어 4일 수습받았다.

수술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월드컵 출전 의지를 보인 손흥민은 벤투호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홈 경기에 수습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알렸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대표팀은 카타르에서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을 노린다. 2002년 한일월드컵서 사상 첫 조별리그 통과와 함께 4강 신화를 쓴 한국 축구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에 오른 바 있다.

카타르월드컵은 조별리그 2위 안에 들어가 16강에 진출한다.

벤투호는 H조에서 우루과이(24일 오후 10시 이후 한국시간), 가나(28일 오후 10시), 포르투갈(12월3일 오전 0시)과 차례대로 만난다.

/뉴시스

이대호, 일구대상 수상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관법인 일구회(회장 김광수)는 2022 뉴트라데이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일구대상(롯데 지어언츠 이대호)에 이어 9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대호는 올해 타율 0.331에 23홈런 10타점을 올리는 등 화려한 은퇴 시즌을 보내 일구대상에 선정됐다.

관심을 모은 최고 타자상은 지난해에 이어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가 부상 3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최고 투수상은 세이브왕에 오른 LG 트윈스 고우석에게 돌아갔다.

의지노력상은 SSG 랜더스의 노경은이, 신인상은 두산 베어스 정철원이 선정됐다.

한국 야구계에 뜻깊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특별 공로상에는 박준환 인천대 총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프로 지도자상은 삼우 박지왕 감독이 받았고 아마 지도자상은 대전고 김의수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대한민국 대표 임실치즈는
자연주의 를 지향하는
바른 먹거리입니다!